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11. 6.(금)

한국수자원공사, AWC 회장기관 재선출… 글로벌 물협력 리더십 이어간다

- 6일 태국 방콕 제26차 이사회서 3년 임기 차기 회장기관으로 재선출
- 지난 10년간 다자간 협력 및 UN 등 국제기구와 파트너십 확대 성과 인정받아
- 아시아 물 문제 해결 주도 및 국내 물기업 해외진출 위한 교두보 역할 지속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1월 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6차 아시아물위원회(Asia Water Council, 이하 AWC) 이사회에서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1월까지 AWC를 이끌 회장기관으로 재선출됐다.

AWC는 아시아 지역 물 문제 대응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물 분야 협력 플랫폼으로 현재 28개국 194개 회원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6년 AWC 설립을 주도한 이후 회장기관이자 사무국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며 회원기관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해 왔다.

이번 재선출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0년간 AWC를 중심으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회원기관과 함께 물관리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해 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시아국제물주간(Asia International Water Week, AIWW)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물관리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해 왔다. 또한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민간기업을 아우르는 폭넓은 파트너십을 통해 회원국들의 실질적인 물관리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했다.

최근에는 유엔(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5년 5월 유엔환경계획(UNEP)의 물 분야 공인기관 지위를 획득했

으며 2026년 2월에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물·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를 넘어 태평양 지역까지 물관리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차기 지도부 선출은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제5차 총회 및 제26차 이사회 일정에 따라 마무리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재선출을 기점으로 기존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아시아 물 현안을 해결할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물관리 솔루션의 국제적 확산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AWC 회장기관 재선출은 지난 10년간 회원기관들과 함께 추진해 온 다자간 국제 협력 노력을 널리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시아국제물주간 등 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글로벌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내 물기업의 우수한 물 기술이 해외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2매(별첨). 끝.

담당 부서	글로벌협력처 글로벌협력부	책임자	부 장	한재진 (042-629-4201)
		담당자	수석위원	김태완 (042-629-420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관련 사진**



[사진] 1. 11월 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6차 AWC 이사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회장기관으로 재선출된 후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 가운데)이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1월까지 AWC를 이끌 회장기관으로 재선출됐다.



[사진] 2. 11월 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6차 AWC 이사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 여섯 번째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